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8호 [루게 제24771호] 주제 103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최후승리의 만년초석이다

주체의 선군태양, 민족의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이하고있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야전복차임으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업적을 수놓아오신 백두의 친출명장을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주제 80(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일찍부터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적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철세의 위인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분출이었다. 이때로부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필승불패성과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이 더욱더 힘있게 떨쳐지게 되었다. 20세기 90년대와 21세기의 첫 10년대에 이룩된 모든 정치군사적기적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의 힘찬 활력도 역사의 이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천체적인 군사적외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명군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정치군사사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같이 총포성이 울부짖는 혁명의 전구에서 탄생하시고 한평생 총대와 함께 반제대결전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치시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몸을 초발처럼 쟁그리 불태워오신 위대한 혁명가, 철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명도하여오신 나날은 조국과 민족앞에 최악의 시련이 겹쌓였던 시기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이 생사기묘에 놓였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었는가를 실감없이 절감하고있다. 수행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선군혁명의 불을기울 더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 자주적군위병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있었으며 승리의 전풍이 곳곳이 이어질수 있었다.

주제 100년사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고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의 불멸의 보루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된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의 기치높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역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있다. 오늘날의 총진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에 토대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승리의 전진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에는 반제반미 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구현해나가야 할 모든 사상리론적, 전략전술적지침들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번영을 위한 정치군사적, 경제문화적토대가 담겨져있다. 역사에 류례없는 가장 존엄한 시련속에서 자주적운동개척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한 이 고귀한 업적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미래는 낙관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밝혀주는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선군사상을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과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총대종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은 인류사상사에 특기할 력사적사건이었다. 선군혁명사상에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견결한 계속혁명의지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 철의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과 군대



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 군사선행과 선군후로의 원칙은 오늘도 꿰뚫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변의 지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선군사상은 혁명 승리의 철리를 새겨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는 정신적 기둥이다. 선군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 3년간 우리 혁명의 주체의 향로는 후호의 혼들림 없었으며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조선혁명가들의 영웅적전군은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있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로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를 헤쳐오는 로정에서 선군사상의 절대적전선성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선군의 길에 제2의 길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을 귀중한 정신적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최후승리의 력사적전군과 더불어 세세대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지지점으로 하여 승리의 전풍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전통은 선군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승리는 대를 이어, 이런 혁명 신념, 혁명배짱, 혁명투지를 지니시고 그 어느 위인전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업적의 길을 이어오신분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세기전 선군혁명위업제승의 새 출발을 선언하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걸으신 군영도의 로정은 157만 4,980여리에 달하며 찾으신 단위수는 연 1만 2,790여개를 헤아린다. 최전연의 가파로운 명길과 풍랑

사나운 배길, 부방의 사나운 눈보라길도 최후승리의 진격로로 여기시며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바로 이 길에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이 자라났고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백두산 병기창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조국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멸의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가 강했기에 피눈물의 1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우리의 사상과 위업, 우리 제도는 끄떡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과 맞바꾼 강철한 전정역제력이 우리의 존엄과 평화를 굳건히 지켜 주었고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웠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우치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가 세계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있는 사변적인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인민군대를 핵심, 기둥으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방위력은 사회주의수호와 최후승리의 제일 보검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승리는 영원히 선군조선의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번영의 찬란한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원천이다.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2대력량이며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한 군민의 힘은 무한대이다.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전통과 위력은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군민대단결, 이것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군인정신을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온

사회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오신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하여 군민일치가 억년 드물지 않을 우리 사회의 밑뿌리로, 세기적변혁과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게 되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악의 역경도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냈고 21세기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열 어놓았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는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와 같은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씨를 안아왔으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최첨단돌파의 장엄한 력사를 펼쳐놓았다. 지난 3년간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 차넘친 약동하는 비약의 기상과 도처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군민대단결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다.

군민대단결은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열과 정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군민대단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업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지부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한평생 선군혁명의 길을 걸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가야 한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는 선군으로 존엄 떨쳐온 영광찬란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오늘도 매일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등대이고 천만군민의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 하여야 한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고결한 총정와 숭고한 도덕 의리심이 온 나라에 꼭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오늘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과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끝까지 함께 해나가는 참된 선군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 실현의 구호이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견결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원칙, 계급 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 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반제군사 전진의 제일기둥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따르며 결사옹위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각오로 심장을 불 태워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백두산혁명강군의 혁명적본태를 견결히 고수 해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혼편을 소홀히 하면 총대에 녹이 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르게 된다는 혁명의 철리를 뼈속깊이 새기고 백두의 혼편열풍을 세차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장수의 성새, 불침의 전함, 하늘의 제일결사대로 만들어야 한다. 전군이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를 힘있게 다그치며 강성국가건설의 기수, 돌격대로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지금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은 천만부당한 《인권 결의》를 조작해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도발선에 불을 달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로동적위군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한순에는 총을, 다른 한순에는 마차와 낫과 붓을 틀어쥐고 자기도, 자기군,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한전초에서 피와 살을 나누며 어깨결고 싸워온 군민일치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양양된 애국의 힘, 불굴의 정신력으로 조선속도 창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지,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천만군민에게 전할줄 모르는 용기를 안겨주고 활력을 부어주고있기에 우리에게는 뚝지 못할 난관, 절망 못할 요소가 있을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 정책옹위전을 맹렬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거이 세계를 더디고 울라시키고야말겠다는 자신 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더 높은 목표와 이상실현을 위하여 최대속도로 내달려야 한다. 인민군대인들의 당정책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의 정신,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파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산과 들, 바다를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전면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과 강위력한 일심단결이 있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선군혁명의 최고로 역세게 쏘여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일홍동지, 김정각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렬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주체의 선군태양,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절절히 그리는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돐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대하처럼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향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

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리용하신 사적 열차, 사적승용차와 울음흙,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과 전동차, 배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적군건설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민족의 대경사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로정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행로이며 천만군민이 력사에 류레없는 폭풍우를 뚫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온 빛나는 년대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

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최후대로 역세게 자랑날수 있었다.

3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2 면에서 계속

총대로 개척된 주제혁명업무를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명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이 땅 위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대를 이어 누리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성변영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백두산 총대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세력

사를 창조해나가고계신다.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전변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군업적을 생명선으로 삼고 군 건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전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조국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혁명장군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의 기치인 최고사령관기를 필멸 휘날리며 주제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청진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성을 바친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실 불타는 일일안고 도금강관리국, 도관광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무역은행 함경북도지점, 청진시 포항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청진고등예술편문학교, 모란지도국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겨주고 화신식경제선동도 활발히 벌리였다. 철출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부원 서희복, 청진광산금속대학

교원 김유광, 청진시기계공장 로동자 박철은 아간지원들 격대에 망라되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였으며 지원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였었다. 함경북도혁명사적관 로동자 강봉숙과 청진포항상점 지배인 리희경, 청진시 포항구역연료사업소 로동자 김혜련, 도인민위원회 유원사업소 로동자 최경일, 청진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김철, 중앙은행 함경북도은행 부원 전현희, 청진시대흥관리부 로동자 리군, 풍라도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상준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도록 높이 모셔갈 순결한 마음으로 온갖 지성을 다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3년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영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23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륝군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의 장장 수십성상의 력사우에 력히 빛나는것은 바로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주체 53(1964)년 6월 23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며칠이 지난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군을 만나시고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동맹에 끌리어 충직한 혁명의 전위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에 끌리어 충직한 혁명의 전위대로 만들려는것은 나의 드림없는

결심이며 의지이다! 력사의 그 의지를 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장 수십성상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새기시였다. 주체 65(1976)년 정월 초하루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복속 비쳐 싸우자!》**라는 불멸의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구호는 제시되자마자 인민군인민들의 심금을 새치게 격동시키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백두산총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백두산혁명장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에서 오 중졸 7련대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오 중졸 7련대청호쟁취운동의 거센 불길속에서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의 총 폭탄대로, 결사관철의 기수로, 어떤 적도 단애에 쳐부수수 있는 무적불승의 백두산혁명장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그 위용을 높이 떨치였다. 력사적화풍들이 편편히 어려온다. 언제인가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의 구조물론보존 교양실도 찾으시였다. 그곳에는 인민군인들이 목숨바쳐 구원한 혁명적 구조물론들과 함께 그들의 투쟁자료도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7명 영웅 전사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닌 그들이였기에 삼단같은 불길속에서 숨없이 뛰어들어 목숨으로 구호나 무를 구원해낼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인들을 영광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넘쳐난 경정의 열기는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토록 장한 전사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시였습디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자라 이 땅에 철벽의 성세를 이루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위급한 상태에서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물기 한점 스며들지 않게 보존하고 장군님을 그리며 떠나간 군인들, 단신으로 적구에서 용감히 싸우고 기어이 승리가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긴 일당백용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덥고 장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오늘의 오 중졸 7련대!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크나큰 품을 들이시여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혁명장군,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김보자 에프엠 90.5방송이 5일 《항일의 여성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2월 24일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탄생하신 97돐이 되는 날이다. 녀사께서는 조선인민이 일본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수난을 겪던 시기 함경북도 회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 항일의 여성영웅 》 전설들이 무수히 퍼져 나갔다. 항일투사들이 밀림속의 나무들에 새긴 구호들은 《2천만 민족아 백두산의 장수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 만세 만만세》, 《백두산 항일녀장수 김정숙장군은 조선이 낳은 불세출의 녀걸이다》, 《백두산녀장군 신출귀몰 천지 주름 잡으며 왜놈 죽인다》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시고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히세의 령장

필승의 력사만을 새겨오신 천하제일명장

명장의 담력과 배짱은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의 담보로 된다. 반세기가 될지 넘는 조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편전편승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최성벽에도 드물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신 탁월한 선군명장을 모시였기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지략과 전범에 능하고 담력이 큰 용장을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김정일동지는 지략과 군사전범이 뛰어나니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필승의 지략과 함께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강적을 취락파락하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켜주신 백범천송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세계는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1968년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평해에 기어어들어 정탐행위를 하다가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푸에블로》호는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기체와 장비를 갖춘 미제의 최신행무장간첩선이었다. 이 간첩선이 우리 공화국의 평해에 침입하였다 나포되자 세계는 저들에게 있어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환멸을 이리태마당 날뛰었다. 미제는 한차례의 현대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한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키면서 우리가 《사파》를 하고 《푸에블로》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을것이라고 횡포하게 위협공갈해나왔다. 실로 파렴치성과 오만성의 극지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수호자

21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대변자들과 회외의자들은 마지도 환화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것처럼 떠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반데로전》으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불길기 타고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었으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탄압하며 유린하면서 국제판례와 국제법을 짓밟고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날뛰었다. 작은 나라이건 큰 나라이건 미국의 눈치를 보았다. 지어 령장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바르소리 한마디 제대도 하지 못하였다. 세계는 전쟁이나 평화나, 자주나 예속이나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계 되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국의 나자과 수단을 막고 자주적으로 한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



미국에서 경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는 학생군중들의 시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돌려주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해놓겠다고 단언하시였다. 사면발방으로 가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고서도 초강경대응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철같이 지키신 절대위인들의 드센 배짱과 담력은 우리 인민에게 전인불반의 의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미국은 우리 인민앞에 회기를 들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시 《푸에블로》호사건을 둘러싼 참예한 조미대결전에 대하여 외국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평했다. 《푸에블로》호사건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죄했고 누가 승리하였는가. 골목헌장은 미국이었다. 김정일정주석과 김정일장군의 조선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백범천송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조미대결에서 미국은 언제나 수치스러운 패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력사에 기록되어있는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놓고보아도 미국의 도발로 벌어진 참예한 조미 군사대결전들은 매년 미국의 굴복과 사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결속되었다. 오죽했으면 미군부의 고위인물까지도 《북조선은 전갈과도 같다. 잘못 밟으면 전갈은 독을 쓴다.》라고 비명을 질렀었다.

세계는 지금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물러들던 1990년대를 잊지 않고 있다. 령장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면서 우리

한 해답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상과 병도의 지성이신 위대한 령장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서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지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록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높은 자주의 정치이며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침략행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례적인 혁명론서, 정치방식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자주화된 세계, 그것은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는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이다. 선군정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승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평화와 자치적 세계사회의위업, 자주화위업을 일구는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

나루 등과 커다란 불들이 우겨져 있다. 나라가 적도선상에 놓여있으므로 내전중 기운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적도기후이다. 적도의 북쪽은 늘 눈 덮이고 비가 많이 내리어 습하다. 남쪽은 대서양

열대림나라 - 콩고

들이 우겨져있어 초원의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있다. 열대림에는 코끼리, 검은성서이 등 열대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나라의 여러곳에 귀중한 동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드갈 민족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이

미국주도의 《반데로련합》을 조작품으로 락인

이런국회의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열마진 한 외교적상에서 미국주도의 《반데로련합》을 조작품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레토그루뵈를 소탕한다는 구실밑에 형성된 《반데로련합》은 미국의 장안품으로서 아

이스라엘의 살인만행 규탄

열마진 77개집단이 커뮤니케를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유대인정착촌확장정책을 반대하는 평화적시위에 참가한 팔레스타인장교 5명 관리를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커뮤니케는 범죄행위에 대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었다. 우리 공화국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파의 대결이었다.

미제는 1993년에 《해개발의혹자》라는 구실밑에 국제헌자력국의 일부 불순세력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으며 파편치하게도 시가지까지 세해놓았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적공격과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떠들면서 침략적인 전쟁계획까지 공표연히 내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모험적인 《덤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었으며 핵무기를 적재한 신형전투기와 합선, 각종 핵타격수단들, 20만명의 침략무력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투입되었다.

세계는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와 동정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그처럼 건박하고 존엄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을 회회계 다물러대시였다. 주체82(1993)년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국, 전진, 전군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이어 핵무기전과 방위조약에서 우리 나라가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언제나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대응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드센 배짱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알리는 폭탄선언이었다.

사실상 핵무기전과방위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다는 것은 보물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대단이었다. 핵무기전과방위조약은 본질상 미국이 핵우산, 핵의 우산을 리용하여 세계무대에서 저들의 《지도적역할》과 영향력을 영위해 행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국제법상의 제재와 압력용두이다. 결국 핵무기전과방위조약에서 탈퇴한

의 행동은 분쇄되었으며 세계사회의운동은 자기의 대오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양상의 길로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인류의 미래이며 리상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팔없이 빛내이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진보적인민류는 그 어떤 팽공속에서도 세계사회의운동이 승승장구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시대적호를는 날로 거세어지고있다. 이것은 선군정치야말로 인류의 반제국주, 평화위업의 승리의 기치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이라는것을 우변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우리 장군님은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자주시대의 걸출한 수령으로, 반제국주력량의 단결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령장으로서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앞에, 인류앞에 쌓으신 업적은 자주시대의 힘찬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명성

다는것은 미국의 정치적외교적압력과 경제봉쇄 지어 무력침공까지도 각오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앞에 세계는 깜짝 놀랐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공화국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했겠다.》 《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를 지지하고 격찬하는 세계의 목소리였다. 미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핵공동을 내리우고 조미회담담장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까지 보내여온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거대한 사면이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행동을 결승마다 짓부시며 필승의 력사만을 새겨왔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기 위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무력간섭의 명분으로 하여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항복서만을 바쳐온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최후발악하며 날뛰는 미국에 차체질것은 무조건적 정벌과 비참한 운명뿐이다. 조미대결전의 력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행동이 어떻게 막을 내렸던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미제는 그때마다 당장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기고만강하여 날뛰었다. 그러나 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담력앞에서는 감히 어찌지 못하였다. 담력과 배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

다함없는 함모, 열렬한 칭송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미제의 군사적도발과 침략행동을 결승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그리고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때 미국의 기를 단호히 꺾어놓으시고 새 전쟁의 발발과 미연에 막으시였다. 그리고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후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시고 조미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시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를 수호할수 있는 민중적인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이 당당한 전쟁적력까지 갖춘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조선에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나게 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당과 국가,

위 인 과 담 력

◇위인의 담대한 배짱은 천하를 뒤흔든다. 강권과 불의가 판을 치는 오늘이 세계에서 어떻게 되어 크지 않은 조선이 미국에 맞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가. 세계의 대결구도가 동서대결로부터 조미대결로 바뀐 때로부터 많은 정치가들이 의문시한 문제점이였다.

여기에 세계를 이어가며 치밀하게 벌어지는 조미대결전을 지켜보며 외국의 한 인사가 러린 심장의 웨침이였다.

《조선은 바로 그 어떤 최성벽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명도자께서 계시어 미국과의 대결에서 편편승을 이룩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에게 있어서 담력이야말로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민족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원자탄보다 더 위대한 최강의 무기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그 어느 위인도 지닌 적이 없는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와의 대결전을 련이어 승리에로 이끄시어 우리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세계만방에 빛내여오신 령장의 위인이시다.

◇적과의 대결은 신념과 의지, 배짱의 대결이다. 력사에는 적과의 대결에서 투항의 회기를 들어 수치를 당한 실례가 허다하다. 핵공동을 들이대는 미국앞에서 그만 못지 않은 강위력한 무장을 갖추고있던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행동이 어떻게 막을 내렸던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미제는 그때마다 당장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기고만강하여 날뛰었다. 그러나 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담력앞에서는 감히 어찌지 못하였다. 담력과 배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

수, 군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초강국도 벌벌 떨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담력은 백두의 기상을 닮고 어리신 시절에 벌써 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역세게 다져진 침룡적기질이며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무공무전한 근엄인민대중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는 드물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발현된 누구나 지닐수 없는 위인적기질이다.

◇드센 담력과 배짱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기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센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기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기를 진감시킨 위대한 대원수님의 담력과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천하제일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지난 3년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고있는 격동적인 사면들을 통하여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그 어떤 최성벽에도 끄떡하지 않는 철의 의지, 완강한 전개력,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대담한 공격정신, 이것이 백두의 정기를 지니신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적자질이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백두산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이 있어 우리는 천만대적앞에서 두 두려움을 물렸고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었다.

명장님에는 약졸이 없다. 드물지 않는 배짱과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 맹활무형한 군사적력, 로빈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발라루시공산당의 한 구역위원회는 《백두산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반공화국살해행동을 결승마다 짓부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

나에게야 전 국외 하원의원은 한 회고소임에서 미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선군정치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칭송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로씨야신문 《하비루스키 엑스프레스》는 《위대한 선군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류는 회세의 령장으로서의 김정일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절감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은 진보적인민류를 크게 고무하며 세계사회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 나라 신문 《나레코드스카야 브라우다》도 《김정일동지 절출한 정치가》, 《선군시대의 령장》이라는 제목으로

날날이 드러난 인권유린공모자들의 정체

비없이 지배주의를 추구하고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과거 다른 대륙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한 행적을 가지고있는 서방인사들이 선군적이라고선 안하무인적으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늘어내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또 벤벤스켓을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을 보아도 미국과 일맥상통하다. 지금 어를들은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속설치 등 반인륜범죄활동에 관하여 일부 유럽나라들의 행위가 일부에 대한 판독한 유린이며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미국의 인권유린범죄에 공모한 책임에서 결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어느 한 신문은 부위접선시기 미중앙정보국이 《테러형의자》들을 비밀리에 해외로 이송하는데 유럽의 비행항과 기지들을 리용하였으며 일부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합치활동을 방조하고 자국내에서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속의 운영을 허가하고도 폭로하였다.

신문이 밝힌데 의하면 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국가적이익》이라는 구실로 미중앙정보국의 인권유린범죄에 공모한 사실자들을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언론들도 유럽의 많은

세계의 허수연역을 받아안고 못되게 놀아내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엄중한 범죄적저서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일부 유럽나라들은 저들이 마치 인권보장의 《본보기》나 되는 듯이 행세하면서 다른 나라에 못할 갖대걸을 했듯이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압력수도에 적극 동조해왔다. 특히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압력에 놀려 유엔 반공화국《인권》조약에 앞장서는 분별없는 행동을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목을 조이는자는 불순한 계획에 따른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속이 엄중한 단계에서 단도고있는 현상이 일부 유럽나라들이 그에 추종한다는 실로 엄중한 적대행위이며 공범범죄이다. 유럽나라들은 인권문제를 론할 초보적인 자격마저 상실하였다. 인권을 서방인사들의 위원을 가리키는 장식물이 아니다. 만일 유럽나라들이 그 누구의 본을 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칼질할 하려하고 인권을 지배주의목적목적실현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미국과 같이 세게인민의 자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